

2017년 재정공시
특수공시 대상사업

목 차

1. 문의-대전간 국지도건설	88
2. 출산장려 문화조성사업	90
3.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91
4. 올해의 관광도시	92
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93
6. 제6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94
7. 전국 최초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96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8
9.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100
1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01
1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운영	102
12.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104
13. 20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106
1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110
15.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112
1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13
17. 대추 클러스터 조성	114
18. 버섯랜드 조성사업	116
19.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118
2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21
21.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123
22. 찾아가는 문화활동	124
2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126
24.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127
25.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128
26. 9988 행복나누미 사업	129
27. 9988 행복지키미 사업 전국 공통사업 채택	132
28.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지원	135
29. 세종대왕 행궁 조성	136
3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38

1 문의-대전 국지도건설

사업목적

- 대중부권 개발과 연계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물동량 수송에 기여
- 대청호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국지도 32호선)
- 사업기간 : 2006년 ~ 2017년
- 총사업비 : 1,816억원
- 사업규모 : L=9.64km, B=20.0m(4차로)
- 지원대상 :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문의면 일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 : 2001. 05. ~ 2003. 07.
- 공사착공 : 2007. 01. 04.
- 공사준공 : 2017. 12. 31.(총공기 3,260일)
- 추진공정 : 전체분 95%
- '17년(12차분) 시공계획
 - 포장공사(아스콘포장), 교통안전시설공사
 - 터널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
 - 신탄진 교차로 공사 (1식)

□ 기대효과

- 국지도 32호선(문의~신탄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구간의 노폭이 협소한 노선을 4차로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방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 계	기투자	'16년	'17년	향후투자
사 업 비	181,587	155,002	17,889	8,696	0

○ 시점부 대청대교(대덕구 신탄진동~현도면 노산리)



○ 시점부 본선(현도면 노산리)



2

출산장려 문화조성사업

사업목적

- 결혼기피현상과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출산율이 급락함에 따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문화운동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주 관 : 새생명지원센터
- 사업비 : 60백만원(도비100%)
- 내 용
 - 출산장려 거리문화행사(4월)
 - 가족생명콘서트(5월, 8월)
 - 청년희망캠프(12월)
 - 미혼부자 인식개선사업(8회)

□ 추진상황

- '16. 4월 : 생명의 밤 연계 거리문화행사
- '16. 5월 : 가족생명콘서트
- '16. 8월 : 미혼모부자 돕기행사
- '16. 10월 :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페스티벌
- '16. 10월 : 청년을 위한 생명콘서트
- '16. 12월 : 충청북도와 함께하는 청년희망캠프
- '16. 연중 : 70인의 행복나눔콘서트(10회)

□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으로 생명 존중 및 가족친화 분위기 제고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도비100%)	180	-	-	60	60	60

3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도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 동아리 지원을 통한(예비) 창업가 육성으로 창업 분위기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사업비 : 180백만원(도비100%)
- 내 용
 - 창업우수기업 지원
 - 창업동아리 지원 및 우수 창업동아리 시상
 -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추진상황

- 창업 우수기업 지원
 - (지원규모) 5개 기업, 기업별 최대 18,000천원
 - (지원내용) 기술지원, 홍보지원, 판로지원 등
- 창업동아리 지원
 - (지원규모) 24개 동아리, 동아리별 최대 1,500천원
 - (지원내용) 창업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
 - (우수동아리 시상) 최우수(1팀)150만원, 우수(1팀)100만원, 장려(1팀)50만원
- 창업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모집) 6.15.~7.29. / 32팀 신청 (분야)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 (시상규모) 10팀(대상1(500만원), 최우수2(250만원), 우수3(100만원), 장려4(70만원))

□ 기대효과

- 창업 우수기업 지원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 도내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분위기 조성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도비100%)	210	0	0	0	30	180

4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목적

- 관광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

※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현황(문체부) : (2016) 제천, 무주, 통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총사업비 : 4,750백만원(국비 1,900 도비 950 시비 1,900)
- 사업내용 :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 홍보 및 마케팅, 이벤트 및 행사

□ 추진상황

- 2014년 ~2016년
 -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 : 제천시티투어 등 3개 사업
 -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 관광두레 육성지원사업 등 7개 사업
 - 홍보 및 마케팅 : 언론홍보마케팅 등 9개 사업
 - 이벤트 및 행사 : 제천힐링음식페스티벌 등 7개 사업

□ 주요성과

-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
- 제천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의 실질적 성장 및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배후 관광도시로서 역량 제고 및 제천의 자연, 한방,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치유도시로서 세계인이 찾는 힐링도시 건설 기반 마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40%, 도비20%,시비40%)	4,750	-	-	250	3,000	1,500

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사업목적

-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2016. 12.
- 위 치 : 2개 시군(청주시, 음성군)
- 사업규모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개소
- 사업내용 : 야영장사이트, 기반시설, 관리동,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900 시군비900)

□ 추진상황

- 현도국민여가캠핑장(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652번지 일원)
 - 2016년 10억원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 전기시설, 오폐수시설 및 관리동(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관리사무실) 캠핑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2017년 4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완료할 예정임
- 백야오토캠핑장(음성군 백야리 160-2번지 일원)
 - 2016년 8억원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및 휴게시설 등 캠핑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준공 예정임.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휴양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 및 지역의 관광활성화 도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50%, 시군비50%)		3,000	2,000	2,000	1,000	1,800

6 제6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목적

- 한·중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및 對중국 이미지 제고
-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행사개요

- 일 시 : '16. 9. 23(금) ~ 9. 25(일)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일원
- 참여인원 : 연 3만명(중국인 유학생, 한국대학생, 한중 기업인, 관광객 등)
- 주제·부제 : 韓中親交-14억 중국인과 함께하다 / 相想共感
-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후 원 :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중국대사관, 한국관광공사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도비 5)

□ 추진상황

- 제4회 페스티벌('14. 9. 12~9. 14, 청주예술의전당, 30,000명)
- 제5회 페스티벌('15. 10. 8~10. 10, 청주예술의전당, 30,000명)
- 제6회 페스티벌('16. 9. 23~9. 25, 청주예술의전당, 30,000명)

□ 주요성과

- 중국 언론 관심 집중으로 對중국 충북도 이미지 제고 기여
* 주한 중국특파원(8명), 중국 현지언론사(9개사 17명), 유학생 SNS기자단(14명)
- 중국 잉커우 항만그룹과 관광교류 및 경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 잉커우 항만그룹 직원(2만명) 해외연수 유치 및 도내 상품 對중국 수출 편의여건 마련
- 한중 기업인, 중국 현지대학생, 도내 청년대표 참여 프로그램 신설
* 한중 기업인 컨퍼런스, 한중 총학생회장 포럼, 청년광장 토크 콘서트 등
-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선보여 참여 대학생으로부터 큰 호응
* 치맥 페스티벌, 석전대재, 도미노 쌓기, 플래시몹, 모바일게임대회 등
- 관객 및 도민이 함께하는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
* K-POP 콘서트, 도전 드림팀, 전통떡 전시·시식, 각종 체험·홍보 부스 90개 운영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50%, 도비50%)	4,150	350 (도비100%)	1,000	1,000	800	1,000

참 고

사진자료

○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막식



○ 한중기업인 컨퍼런스



○ 치맥 파티



7

전국 최초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목적

- 일할 능력이 있는 지역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연결하여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배경

- 생산적 일자리 기피로 농촌 및 기업은 심각한 인력난 지속
- 농촌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과다 상승으로 영농·경영 압박
- 반면, 외국인·다문화가족 노동자 증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 비생산적 활동 소일 유휴인력은 과다 발생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 ~ 12.
- 총사업비 : 1,750백만원(도비550, 시군비400, 자부담800)
 - 생산적 공공근로 : 1,600백만원(도400, 시군400, 자부담800) * 운영기관 50%, 자부담 50%
 - 생산적 일손봉사 : 150백만원(도비) * 자부담(농가기업) 없음

■ 생산적 공공근로 (시군운영)	■ 생산적 일손봉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지급 : 1일 6시간 4만원 (운영기관 2만원(도1, 시군1) + 농가·기업 2만원) ▶ 일 할 곳 : 농가 및 중소기업(제조업 분야) ▶ 일할사람 : 만75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도민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 7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지급 : 1일 4시간 2만원 (도비) ▶ 일 할 곳 : 농가 및 중소기업(제조업 분야) ▶ 일할사람 :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도민

추진상황

- 1,137개 농가·기업에 33,975명 참여
 - 생산적 공공근로 : 450개소 28,413명 / 생산적 일손봉사 : 687개소 5,562명

● 안정적인 인력수급,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기업 생산성 향상·경영개선 기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출처 : 충북연구원
인력난 해소 > 연 34,000명	생산 효과 > 91억원	
인건비 경감 > 6.8억원	생산유발효과 > 9억원	
소득 창출 > 12.5억원	부가가치효과 > 3.9억원	

- 농가기업, 주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효자사업 호평, 참여자 정규직 채용(43명)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백만원)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도비31%, 시군비23%, 자부담46%	1,750					1,750

충북일보

2016년 12월 21일 (수)
10면 기획



유휴 인력 활용해 일손부족 해소
‘노동력 부족 해결사’

최근 통계청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2031년 5천 29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천300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당장 올해 8천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턴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 매년 30만 명 이상씩 급감, 2065년에는 2천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오는 2065년에는 47.9%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를 통해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응해 나가고 있어 소개한다.

충북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 기피현상으로 인한 농촌과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도시지역의 실업률 가속에 현상에 주목했다. 농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상승으로 영농·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농촌과 기업현장의 생산적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의 노동자들로 충원되어 겨우 명맥유지 상태에 있다.

특히 내국인들의 대부분은 생산적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으며, 생산적 일자리에 종사 가능한 유휴인력 상당수가 운동, 여행, 취미활동 등 비생산적 활동에서 소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내국인들이 생산적 일자리를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하여 유입(중가월 경우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28년에는 외국인에 내국인이 추월하고, 2078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이, 2064년에는 핵심생산인구(25~49세)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을 추월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충북도는 일찌감치 내다보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잠정적 농촌과 중소기업에 유휴인력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충북도의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생산적 공공근로사업’과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으로 나눈다. 하루 6시간 일하고 4만 원의 임금을 받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임급의 절반인 2만 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농가와 기업은 2만 원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

1일 4시간 일하며 2만 원의 임금을 받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실비의 전액을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75세 이하 누구나 가능하며 일자리를 원하거나 일손이 필요한 농가 및 기업체는 관할 주소지 시·군 경제사무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첫발을 뗀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했다. 사업시행 5개월 만인 지난 11월 말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모두 완료했다.

시행 초기 임금기 상대적으러 켜어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2천 8만413명,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에 5천 562명 등 총 1천137개 농가·기업에 3천3975명의 도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주 5천672명 △충주 6천652명 △재천 3천553명 △보은 2천57명 △속천 3천638명 △영동 2천480명 △증평 1천338명 △진천 2천301명 △괴산 2천899명 △음성 1천992명 △단양 1천666명 등이었다.

■ 생산적 일자리사업 지급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력난 해소 > 연 34,000명	생산 효과 > 91억원
인건비 절감 > 6.8억원	생산유발효과 > 99억원
소득 창출 > 125억원	부가가치효과 > 39억원



▲2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생산적 일자리사업 도민행기대회 개최된 가운데 생산적 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민행복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은 ‘행복 바람’과 ‘피로연속’이 열리고 있다. ▲이시중 지사가 유공자, 유공공무원 등을 상훈·포상하고 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도민행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태호기자

■ 전국 첫 시행 ‘2016 생산적 일자리사업’ 성과

생산가능인구 내년부터 줄어 오는 2065년 2천만명 불과 저출산·고령화시대 도래... 농촌·산업현장 외국인에 잠식

충북도, 만75세 이하 일자리... 일손 희망하는 곳에 도움 사업 참가자 95% ‘만족’... 96% ‘일자리사업 확대 희망’ 참가자 중 정규직 채용 전환 기회 제공 부족해 일손 충전

내년 공공근로·일손봉사 통합... 목표인원도 9만명으로 늘려 “응답 받고 건강 챙기고 봉사·지역경제 보탬 ‘1석4조”

충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경제개선효과 6억 8천만원, 소득창출효과 12억 5천만원, 충북 농가와 기업의 총생산효과 91억원, 생산유발효과 99억원, 부가가치효과 3억 9천만원의 직·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95%가 만족하고, 참여자의 96%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충북연구원의 설문 조사결과 나타났다.

○인력난 해소·정규직 채용 등 ‘호황’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농가·기업·근로자들의 호평과 혼란한 미담도 잇따르고 있다. 재현이 있는 안남생산 공장 ㈜메스트는 지난 8월 추석을 앞두고 팔팔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심하던 중 생산적 공공근로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 13명을 지원 받아 덕분에 주문량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인력 수급 걱정을 덜어준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메스트에게는 효자사업이 됐다. 청주에서 거주하는 이모(62) 씨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소개받았다. 이씨는 새벽 5시30분 인근 오이하우스 농가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와 손주도 돌본다. 받은 임금은 손주 학원비에 보태며 보탬을 느끼고 있다. 이씨는 “일을 시작하면서 몸도 좋고 건강도 챙기면서 봉사와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며 1석 4조라며 “농가와 기업, 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사업”이라며 말했다.

성심한 참가자에게는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주어졌다. 박령상 서운에스오엔 대표의 지난 11월,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11명을 눈여겨보고 이 중 8명을 정규직으로 내거게 채용했다. 이 외에도 청주의 유재복 가공업체 등 5개 기업에서 13명, 재현의 영농조합법인에서 2명, 보은 플라스티크용기 제조업체 등에서 4명, 충평 흥상식품업체에서 5명, 진천 토마토원 등에서 10명, 괴산 옥보장에서 1명 등 총 4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내년 목표인원 9만2천명 충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나눔·배려·봉사의 의미가 강화된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목표인원도 올해 3만 4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크게 늘려 어려운 농가와 기업의 일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하루 6시간 봉사에 4만 원의 실비를 받는 전일 일손봉사의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 원의 실비를 받는 반일 일손봉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실비의 절반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농가의 기업체도 절반을 부담한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은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는 반일 일손봉사사업 운영에 실비의 전액을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주는 등 읍면의 등원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상해보험 상품도 완료돼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앞으로 상해보험이나 유류장에서는 3천만 원, 상해 수배 30만 원, 골절단비 20만 원, 통원치료 1일당 5천원 등의 보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충북도 경제총생산장은 “최근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31년 이후에는 인구절벽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했듯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생산적 일자리를 이러한 변화에 충북도가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역 인력난 해소의 모범사례로 전국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충북도, 만75세 이하 일자리... 일손 희망하는 곳에 도움 사업 참가자 95% ‘만족’... 96% ‘일자리사업 확대 희망’ 참가자 중 정규직 채용 전환 기회 제공 부족해 일손 충전

내년 공공근로·일손봉사 통합... 목표인원도 9만명으로 늘려 “응답 받고 건강 챙기고 봉사·지역경제 보탬 ‘1석4조”

충북연구원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충북도와 시군비 9억5000만 원을 들여 연 3만4000여 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6억8000만 원의 농가와 기업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억5000만 원의 소득소득 창출과 91억 원의 생산효과, 9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직간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연구원 김경구 박사는 “이 사업은 상생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경제와 협업가치의 우수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해 노동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東亞日報

2017년 01월 04일 (수)
18A면 충청/강원

충북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 상생경제 모델로 뒀다

지역 유휴인력 농가·기업에 연결 근로자 95%-사업장 97% “만족” 귀농 귀촌 활성화 기반 마련

충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농가와 기업, 참여자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도시 유휴 인력 등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중소기업 등에 연결 지원하는 것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충북연구원을 통

해 지난해 10, 11월 2개월간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422명과 참여농가 및 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 근로자의 95%와 참여농가 및 기업의 97%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참여 근로자의 96%가 이 사업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84%는 “이 사업에 참여한 경험 이 향후 일자리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고용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 사업에 성실히 참가했던 근로자 43명은 해당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고용촉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농가와 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

요할 경우 57%가 “이 사업을 통해 이를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가와 기업의 생산적 일자리를 현장에 지역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충북도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고용을 유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귀농 귀촌 예비자들에게 사전 경험 기회를 제공해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충북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밖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들이 지역 농산물과 제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비자가 돼 직거래 등 판로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능성 화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충북도와 시군비 9억5000만 원을 들여 연 3만4000여 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6억8000만 원의 농가와 기업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억5000만 원의 소득소득 창출과 91억 원의 생산효과, 9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직간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연구원 김경구 박사는 “이 사업은 상생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경제와 협업가치의 우수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해 노동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충북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산업에 관한 고용창출
- 지역특성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으로 지역 취업률 상승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31.
- 위 치 : 도내
- 사업량 : 고용노동부 공모에 의해 선정(13개 사업)
 - 포럼, 컨설팅, 고용창출지원, 고용혁신추진단, 고용환경개선(2), 프로젝트(7)
- 총 사업비 : 4,070백만원(국비 3,242백만원, 도비 828백만원)

추진성과

- 고용거버넌스 운영 및 도 및 시군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 ⇒ 2016년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우수상 수상(인센티브 100백만원)
- 고용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추진
- 고용지원금, 기숙사 임차비,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 발굴
-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10,286	1,590	1,981	2,645	4,070

참 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 서포터즈 운영 안내



○ 고용우수기업 홍보



○ 청년고용활성화 워크숍



○ 충북 고용혁신 프로젝트



○ 공공기관-대학생 잡 멘토링



○ 충북 일자리지원 주요정책 TV 홍보

9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
- 공동 간병서비스 사업실시로 체계적인 서비스제공 및 가정 경제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량 : 2개소 56병상
- 총사업비 : 264,000천원
 - 산출근거 : 청주의료원 30,000원(28병상) × 5,400(입원일수) = 162,000천원
 충주의료원 30,000원(28병상) × 3,400(입원일수) = 102,000천원
- 사업내용 : 공동 간병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간병비 일부 지원

□ 추진상황

의료기관	목표		추진실적				
	병상수	연인원	병상수	실인원	연인원	평균입원일	추진성과(%)
총계	56	8,800	56	602	7,921	12.8	90
청주의료원	28	5,400	28	393	5,400	13.1	100
충주의료원	28	3,400	28	209	2,521	12.3	74

□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기회 부여
- 간병인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이전	'13년	'14년	'15년	'16년이후
사 업 비	736	137	147	147	147	158

1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목적

- 2020년까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의 의무교체에 따른 서민층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가스안전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비 : 1,671,747천원 (국비 1,337,398, 시군비 334,349천원)
 ※ 지원기준 : 국비 80%, 지방비 20%(시군비 100%)
- 사업량 : 7,243가구(11개 시군)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사업내용 : LPG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 콕 설치

〈금속배관 설치의무화 개요〉

- LP가스 사고예방 대책 일환으로 2020.12.31.까지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 제5조)
- 미 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해서 금속배관 교체비용 지원

□ 추진상황

- 11개 시군 7,243가구에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및 퓨즈콕 설치

□ 기대효과

- LPG 사용시설의 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사전예방에 기여
- 가스사고 사고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이후
사업비	10,234	2,723	1,073	1,073	1,671	3,694

1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운영

사업목적

- 여성정책, 교육, 문화교류 등 여성 중심 복합 공간 조성으로 도내 여성의 행복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계 공동체 형성과 협력체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 주 관 : 충청북도
- 총 사업비 : 7,618백만원

□ 추진상황

- 13년부터 15년까지 총 76.22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면적 2,575.68m² (지하1층/지상3층), 부지 11,542m²에 해당하는 규모의 미래여성플라자 건립
 - 주요시설 : 문화이벤트홀(146석), 다목적실(100인), 영상미디어실(63석), 회의실(25인), 사무실(4개소), 체험실습실(30인) 등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시설 제공, 여성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 내외부에 CCTV 14대, 외부에 보안시스템 9개 등을 설치

□ 기대효과

- 도내 여성의 상생·소통·교류의 장 및 문화적 소통 공간 창출
- 동남지구택지개발 조성에 따라 지역 주민 참여 증가가 예상되는 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육아 도움의 장으로서 역할 기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이후
사업비	7,618	10	234	3,471	3,903

참 고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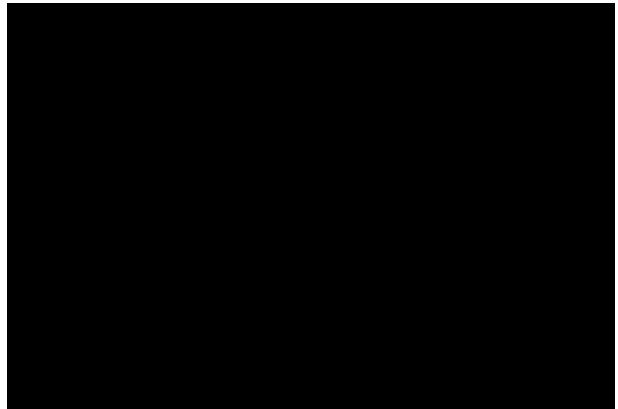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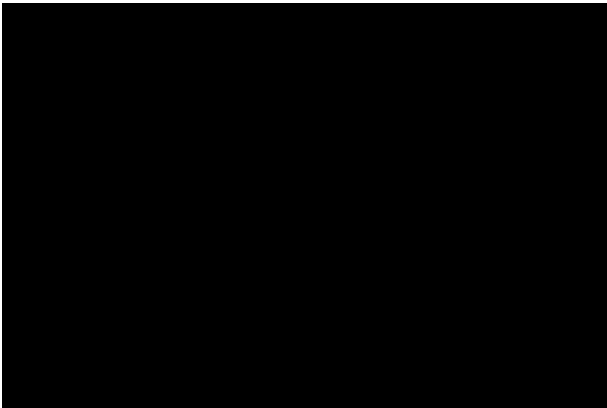
문화이벤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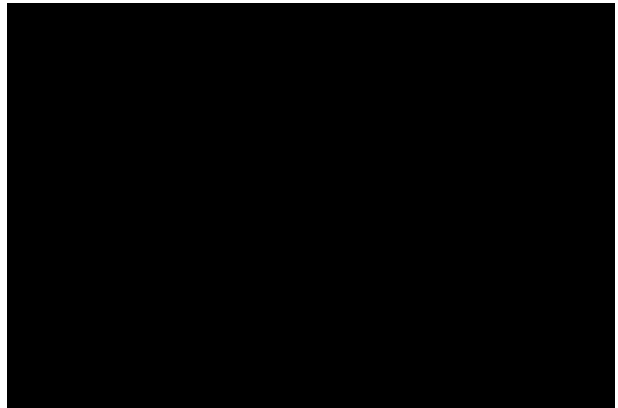
회의실



체험실습실



다목적실



놀이방

12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사업목적

- 전통무예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무예의 중심심지로서 무예를 소재로 한 지구촌 대축제 창건으로 대한민국, 특히 충북이 전세계 무예 문화의 성지 및 무예산업 선점

□ 사업개요(개최결과)

- 기간/장소 : 2016. 9. 2. ~ ~ 9. 8./청주체육관 등 6개소
- 참가규모 : 81개국, 1,940명
- 경기종목 : 17종목(정식종목 9, 시범종목 6, 특별종목 2)
 - 정식종목(9) : 태권도, 무에타이, 킥복싱, 삼보, 크라쉬, 합기도, 용무도, 통일무도, 기사
 - 시범종목(6) : 택견, 우슈, 검도, 유도, 주짓수, 벨트레슬링
 - 특별종목(2) : 기록경기, 연무경기
- 주최/주관 : 충청북도·청주시/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 총 사업비 : 81억원(국민체육기금 9, 도비 51.5 시비 20.5)
- 주 제 : 세계 무예의 조화(Harmony of World Martial Arts)

□ 주요성과 및 의의

-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무예마스터십(무예올림픽) 창건, 제1회 대회 개최로 대한민국을 세계무예의 성지로 승화
-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창립, 대회 지속개최 기틀 마련
-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미래유망산업인 '무예산업' 선점
- 세계 유명스포츠 인사 대거 참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자치역량으로 치러낸 역사상 세계 최초·최대의 '국제무예종합경기대회'

□ 향후계획

- 2019년도 충북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 계	'15년까지	'16년
사업비 (기금 900, 도비 5,150, 시비 2,050)	8,090	435	7,655

○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13 20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사업목적

- 우리도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화장품뷰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4% 충북경제 견인 및 대한민국 K-뷰티 중심지 입지 구축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16. 10. 4.(화) ~ 10. 8.(토), 5일간 / KTX오송역 일원
- 주최/주관 : 충청북도, 청주시/(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총 사업비 : 2,982백만원(도비 2,482 시비 500)
- 시설규모 : 7,690㎡(전시관 6,890㎡, 컨퍼런스홀 800㎡)
- 참가규모 : 기업체 197개사, 바이어 1,080명, 관람객 82,760명
- 행사내용 : 산업전시, 수출상담, 판매, 컨퍼런스 및 뷰티체험 등

□ 추진실적

- 기업유치 : 197개사(국내 193, 해외 4)
- 바이어 유치 : 1,080명(국내 545, 해외 34개국 535)

계	중국	대만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미국	베트남	터키	기타
535명	108	48	48	37	36	31	27	24	21	17	15	15	12	96

- 컨퍼런스 : 5개(국내 3, 국제 2)
- 성과 : 수출상담액 2,235건 12,116억원, 현장계약액 : 7건 155.2억원

□ 기대효과

- 수출상담회 활성화로 국내외 화장품·뷰티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장(場) 제공
- 해외바이어 및 타지역 기업, 바이어 유치 등 유동인구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5,964	-	-	-	2,982	2,982

참 고 1

20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현장사진



개막식 개회사



테이프 커팅



K-뷰티관



기업관



뷰티마켓관(체험)



마켓관



안내소



뷰티체험(네일아트)



비즈니스관(상담)



비즈니스관(상담)



뷰티체험(이혈테라피)



수출협약식



K-뷰티포럼



국제 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



참가기업 초청만찬



현장학습

忠清日報

2016년 10월 04일 (목) 02면 정치



2016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가리울 하투 앞도 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린 모습이다. /이종필기자

3회 오송 뷰티엑스포 오늘 '팡파르'

기업간 거래 대폭 늘려 비즈니스 성과 기대
고품질 화장품 싸게 파는 마켓팅 인기 예상
패부 관리 체험 등 관람객 즐기기에도 풍성

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가 4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기업간 상품 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1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비롯해 100여 명의 바이어들이 오송을 찾는다. 이번 엑스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KTIX 오송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최신 유행품 소

관(B2B 중심)의 산업전시·홍보 및 교육(단)과 마켓팅(B2C 중심) 판매, 비즈니스(관)수출상담, 현장 마케팅, 컨퍼런스(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 화장품 관련 정보교류로 구성된다. 특히 흥미로운 화장품을 체험할 수 있는 마켓팅 부스를 비롯해 1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비롯해 100여 명의 바이어들이 오송을 찾는다. 이번 엑스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KTIX 오송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최신 유행품 소

충청매일

2016년 10월 04일 (화) 01면 종합

“동남아 바이어를 잡아라”

제3회 오송엑스포 오늘 개막
참가기업·해외바이어 대폭 증가
충북도 수출시장 다변화 공략

동남아 기업과 바이어들이 충북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열리는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오송엑스포)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들로 대박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이번 행사 성공을 동남아 기업들에 맞추기로 했다. 3일 충북도는 이번 엑스포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케어, 사일림화장품, HP&C 등 전세계적으로 K-뷰티를 선도하는 197개의 기업이 참여해 258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충북도는 기업관을 확대 조성하면서 이번 엑스포가 국내 최대의 화장품 수출진출전 전문 엑스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념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열린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는 20개국 400여 명의 해외바이어들이 참여한 것에 비해 147개국 11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충북도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수출시장의 변화를 위해 지난해 엑스포에 비해 중화권 바이어 비율을 66%에서 40%로 축소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바이어를 공략해 왔다. 이는 중화권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K뷰티 한류 확대를 통해 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산업관·기업관을 기업관 I·II·III로 확대 조성했으며, 1대 1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송역 1층에 마련된 기업관은 일반인 관람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오픈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현장시연을 선보인다.

이제는 중화권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K뷰티 한류 확대를 통해 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산업관·기업관을 기업관 I·II·III로 확대 조성했으며, 1대 1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송역 1층에 마련된 기업관은 일반인 관람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오픈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현장시연을 선보인다.

이제는 중화권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K뷰티 한류 확대를 통해 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산업관·기업관을 기업관 I·II·III로 확대 조성했으며, 1대 1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송역 1층에 마련된 기업관은 일반인 관람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오픈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현장시연을 선보인다.

이제는 중화권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K뷰티 한류 확대를 통해 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산업관·기업관을 기업관 I·II·III로 확대 조성했으며, 1대 1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송역 1층에 마련된 기업관은 일반인 관람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오픈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현장시연을 선보인다.

이제는 중화권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K뷰티 한류 확대를 통해 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산업관·기업관을 기업관 I·II·III로 확대 조성했으며, 1대 1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송역 1층에 마련된 기업관은 일반인 관람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오픈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현장시연을 선보인다.

이제는 중화권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K뷰티 한류 확대를 통해 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산업관·기업관을 기업관 I·II·III로 확대 조성했으며, 1대 1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송역 1층에 마련된 기업관은 일반인 관람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K-뷰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오픈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현장시연을 선보인다.

忠清日報

2016년 10월 05일 (수) 01면 종합



4일 KTIX오송에서 열린 '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운데)와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손문기 시장, 이은춘 청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을 갖고 있다. (위) 이날 행사현황으로 2015 마이크로야 수상자와 2016 미스인턴터너먼트 수상자들이 '미스뷰티쇼'를 선보이고 있다. /이종필기자

'K-뷰티' 충북 오송이 선도한다

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화려한 막
국내외 기업 200여곳·바이어 1000여명 참가

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4일 KTIX오송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개막식은 정진업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문기 시의원약무안전국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양희 충북도의회장, 이

가 참여한 약 2200여명의 1대1 수출상담회가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전문가가 참여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K-뷰티를 선도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이 참여하며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표되는 뷰티화장품, 퍼이온에 등이 독립부스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필기자

忠清日報

2016년 10월 06일 (목) 06면 경제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서 대형 수출계약 잭팟 터졌다

㈜뷰티화장품, 중 업체와 650억 규모
마켓관도 관람객 북적... 흥행 이어가

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기업관과 마켓관 모두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엑스포 개막식에서 123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이 진행된데 이어 수출계약액 650억 원의 신기록을 세웠다. 또 기업관이 흥행을 이끌어 주던 마켓관과 두루포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뷰티체험관에도 일반인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HP&C는 중국 화장품 수입 및 뷰티사업 전문 기업

드르셀 마스크팩과 아이제이, 노화방지용 펩티드 마스크팩과 뷰티아라고 알려져 있는 락토스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락토스 라인'을 수출하게 된다. 오송상업단지에서 위치한 리타레코스에 찍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입 유통기업 베리코스메와 50억 원(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기초화장품 전문업체인 포르도도 품목 수입전문기업인 캣츠고LLC도 대이그림과 마스크팩 등을 수출하는(8100만 원 상당)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4일 뷰티화장품(대외 연관)은 중국 화장품 수입 유통 기업 실상시 의총바이오텍(중화인민공화국)과 100억 원(1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뷰티화장품은 자사 주력제품인 하이

충청일보

2016년 10월 05일 (수) 02면 경제

'뛰는' K뷰티 '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AKWC인태세탁·대규모역 동행사장 방문
K국의 기업 4곳과 수출계약 체결
HP&C, 5천만 원 규모 생산시설 증설기로

4일 열린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 전문가가 참여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K-뷰티를 선도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이 참여하며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표되는 뷰티화장품, 퍼이온에 등이 독립부스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필기자



4일 열린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현장에서 만난 K 뷰티 기업 대표와 바이어들이 1대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필기자

1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사업목적

- 수산식품 연구개발·가공·유통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8(6년)
- 위 치 : 괴산군·읍 대덕리 46-6번지 일원
- 사업비 : 230억원(국비 90, 도비 90, 군비 50) ※ 해수부 지원사업
- 규 모 : 부지면적(75,721㎡), 시설면적(7,450㎡)
- 시 설 : 수산물 가공공장 2동(4개업체), 판매(식당) 1동(6개업체),
관리사무실(수산식품R&D) 1동, 수산물 생산시설 1동 등

□ 추진상황(계획)

- 부지 선정 : '13. 4월
- 기공식 및 토목공사 착공 : '15. 11월
- 건축공사 착공 : '16. 8월~

※ 현공정(8월 현재) : 93%(토목 100%, 건축 79%, 진입도로포장 100%)

- 운영조례 제정 : '17. 9월
- 입주업체 선정 : '17. 10~12월
- 개장식 : '18.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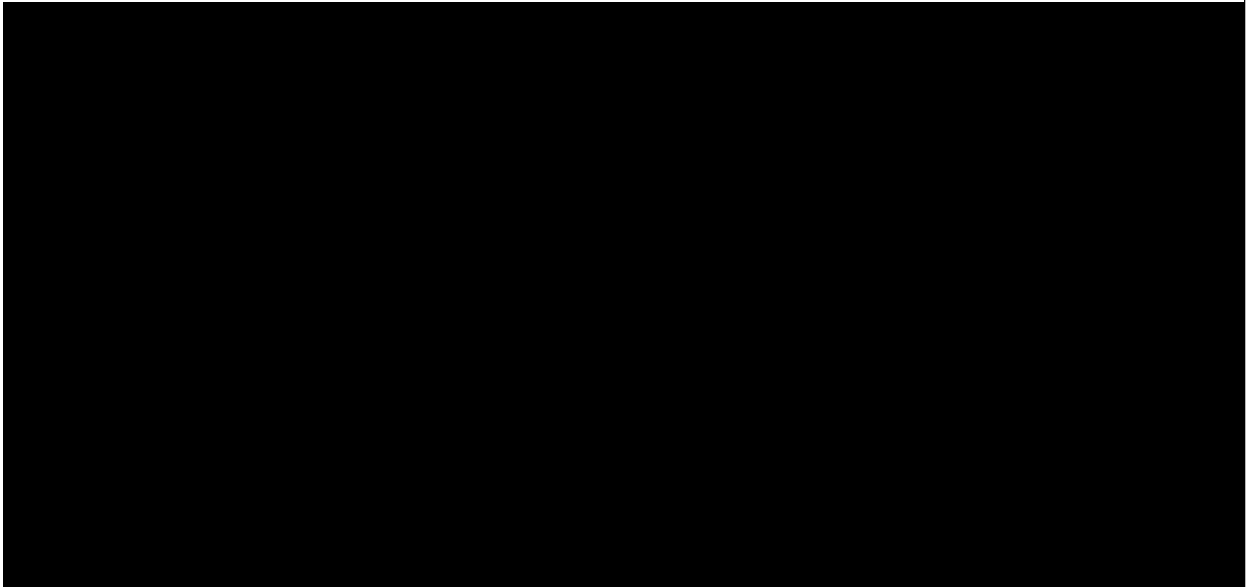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수산식품산업 육성으로 어업인 새로운 소득원 제공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 생산·판매로 소비 촉진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억원)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비	230	8	50	82	81	9

○ 조감도



○ 가동시설 A동(2층)



○ 가공시설 B동(1층)



○ 식 당



○ 관리사무동



15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사업목적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 규 모 : 부지 4,121㎡, 연면적 5,570.51㎡(지상5층, 지하1층)
- 수탁기관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2015. 6. 12. ~ 2018. 6. 11.)
- 총 사업비 : 450백만원(도비 100%)

□ 추진상황

-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 사회공헌연계사업(중부매일, 레스베라, 삼성SDI, 충북드림팀합기도연합회), 복지+진로 융합프로그램(6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 「복지충북」 발간(4회 8,000부), 충북복지넷 구축,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운영(99회 3,215명) 등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충북사회복지토론회(2회), 충북사회복지기초통계(8회), 충북복지지도제작, 충북복지 주간동향(51회), 사회복지종사자 업무활용 매뉴얼 제작 등
-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
 - 찾아가는 사회복지 법정교육(46회 1,799명), 법인관리지침교육(5회 603명), 회계청렴 멘토링 교육(6회 130명), 사회복지법인외부이사역량강화교육(3회 89명) 등

□ 기대효과

- 사회복지단체 상호간 연계, 교류 협력 강화와 사회복지관련 정보 제공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2,133	393	420	430	440	450

1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목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량 : 186개소
- 사업비 : 11,234,004천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토요운영비 지원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186개소에서 우선보호아동(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일반아동 4,9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보육, 교육, 가족기능 강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권리 보장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44,819	5,663	6,527	10,952	10,443	11,234

17 대추 클러스터 조성

사업목적

- 산림자원(보은대추)을 기반으로 1차(대추)·2차(제조업)·3차(체험관광) 산업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및 임가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0.
- 위 치 : 보은군
- 주 관 : 산림청
- 총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

□ 추진상황

- 2016년도 사업으로 대추생산기반 및 가공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대추생산기반 조성 9.4ha, 가공시설 6개소 지원 추진 중
- 향후 2017년까지 대추생산기반(대추비가림) 조성 및 가공시설을 완료할 계획임

□ 기대효과

- 농산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 증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50%, 군비10%, 군비10%, 자부담30%)	2,000	-	-	-	-	2,000

○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 대추 가공시설 조성 현장



18 버섯랜드 조성사업

사업목적

- 버섯의 6차 산업화(생산·유통·가공·관광 등을 연계)를 통해 농산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신성장 전략품목으로써 버섯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거점단지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2.
- 위 치 : 괴산군
- 주 관 : 산림청
- 총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추진상황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버섯랜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함
 -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매입 추진
 -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토목공사 계약 완료('17년 착공)
- 향후 2017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버섯전시체험관, 버섯테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 기대효과

- 국내 유일 버섯테마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산림버섯의 전략적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50%,도비25%, 군비25%)	2,000	-	-	-	600	1,400

○ 조감도



○ 현장사진



19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사업목적

- 시골주민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으나 도로사정 및 재정여건의 한계로 버스 벽지노선 신설 어려움
-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버스 미운행 마을주민 교통 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대상 :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마을(200여 개소)
- 사업내용 : 버스 미운행 마을 대상 버스요금 정도의 맞춤형 택시 운행
주민요청에 따라 마을 ~ 읍면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 운행
- 사업비 : 총 60억원(도비24억원, 시군비 36억원)

□ 추진상황

- '14년 6월 ~ 12월 : 기초차료 조사 및 도-시군-운수업계 회의
 - '15년 1월 ~ 6월 : 지원조례 제·개정, 대상마을 확정, 사업비 확보
 - '15년 7월 ~ 12월 : 11개 시·군, 100여개 마을 시범운행
 - '16년 1월 ~ 12월 : 11개 시·군, 150여개 마을 확대운행
 - '17년 1월 ~ 현재 : 11개 시·군, 200여개 마을 확대운행
- ※ 연차별 확대 운행 : '15년 100개(시범) → '16년 150개 → '17~'18년 전체 200여개 마을

□ 기대효과

- 시골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증진
- 버스요금 수준의 택시 운행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재래시장 및 병원 연계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권 확보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도비40%, 시군비60%)	2,000	0	0	0	500	1,500

□ 시골마을 행복택시 주민설문조사

○ 조사기간 : '16.4.25 ~ '16.5.13

○ 조사대상 : 11개 시·군, 772명 (이용대상자의 10% 정도)

○ 조사방법 : 마을대표를 통한 설문지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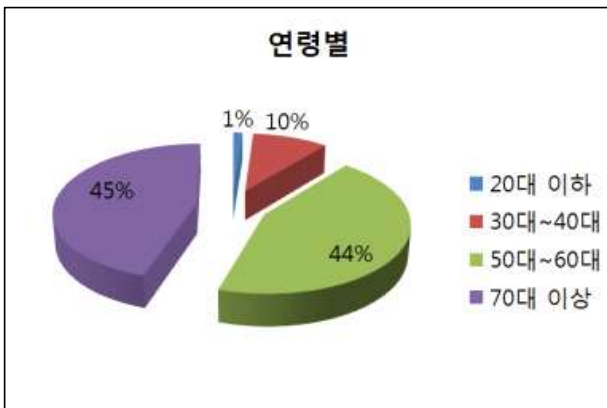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이용현황 : 50대이상 89%, 병원·시장 75%, 주 3회이하 이용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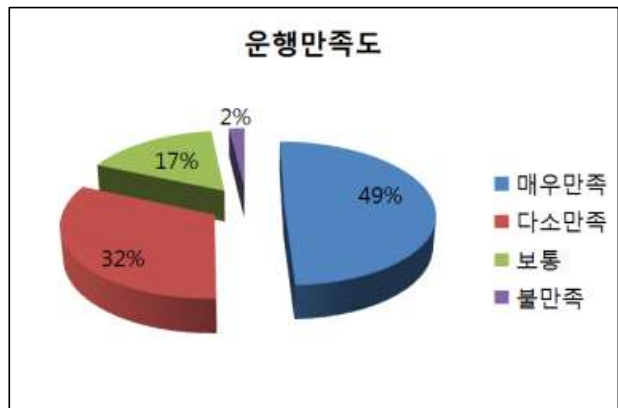
- 만족도 : 운행만족 98%, 요금만족 93%, 친절만족 98%

〈 주민 설문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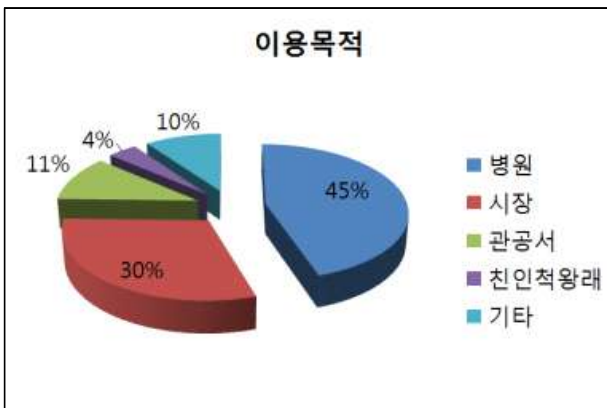
이용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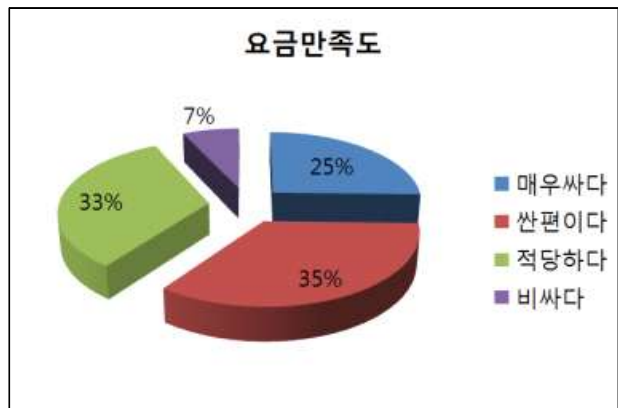
이용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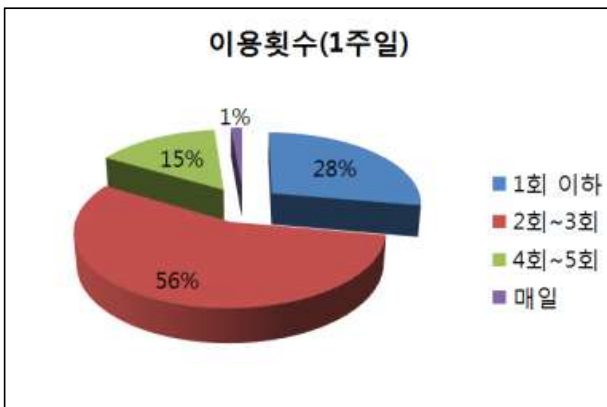
이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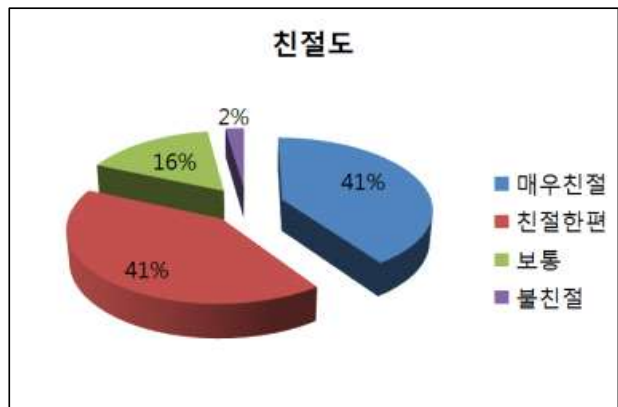
요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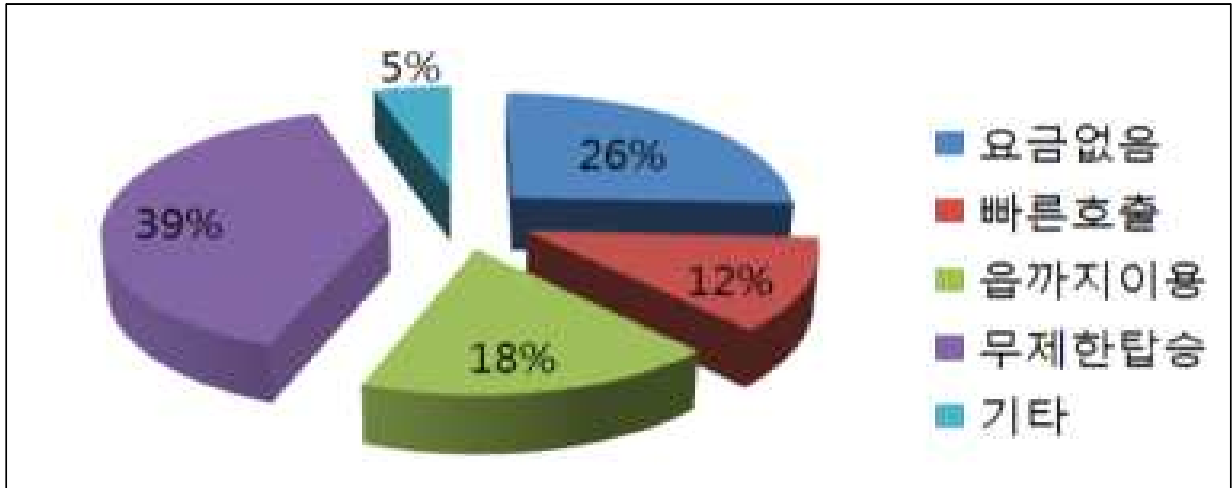
이용횟수(1주일)



친절도



〈 행복택시에 바라는 점 〉



〈 주민 의견 청취 〉

영동군 용산면 도내마을
(‘16.5.11. 마을방문)



“물리치료 받는게 너무 편해,
이렇게 좋은날이 왔는데
지금까지 헛살았어!”

- 김금순 어르신 -

“행복택시 운행으로 매달 100만
원넘게 수입이 늘어 즐겁습니
다.”

- 최병춘 행복택시 기사 -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16.5.12. 마을방문)



“마을 어르신들이 행복택시타고
병원을 편하게 가시니까
이장으로써 뿌듯합니다.”

- 김오달 이장님 -

“행복택시 안다니는 마을에서
우리동네를 엄청 부러워해!”

- 심곡마을 어르신들 -

2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목적

-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위 치 : 7개소(충주, 제천2, 옥천, 영동, 진천, 괴산)
- 주 관 : 농촌진흥청
- 총 사업비 : 55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추진상황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9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건강생활 프로그램, 평생학습 여건 조성,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노인 전통문화기술 활용 소득화 등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016년도는 7개소 550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노인 소득사업 발굴 및 생산적 활동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높음
- 향후 2020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계획임

□ 기대효과

-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 소일거리 발굴, 소득과 연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장되어 가는 전통문화 보유기술 계승 발전으로 노인 생산적 일자리 창출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50%, 시군비50%)	8,900	6,900	500	450	500	550

○ 쌀 활용 음식 만들기



○ 마을 화단 가꾸기



21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사업목적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3. ~ 2016.12
- 사업위치 : 도내 11개 시·군
- 지원대상 : 44,865명(기초생활수급자 26,919명, 차상위계층 17,946명)
- 지원방법 :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사업비 : 2,561백만원(국비 1,823 지방비 738)

□ 추진상황

- 문화누리카드 44,865매(91%) 발급 및 2,012백만원 사용
- 전담인력 지정을 통한 체계적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
- 문화장바구니 사업을 통한 가맹점 확대와 지역 가맹점 활성화 추진

□ 기대효과

-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이후
사업비	9,982	1,743	2,555	3,123	2,561

22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목적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연 제공
-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우 기회 확대 및 전문예술단체의 활동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위 치 : 도내 11개 시·군
- 주 관 처 : (재)충북문화재단
- 총 사업비 : 328,514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110여회 공연 추진

□ 추진상황

- 2016년 : 79개 단체 106회 공연 추진(연극 10, 무용 8, 음악 46, 전통예술 36, 다원예술 6)
- 2015년 : 70개 단체 103회 공연 추진(연극 11, 무용 8, 음악 43, 전통예술 33, 다원예술 8)

□ 기대효과

- 문화소외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도민 문화향유 확대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 기회 마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도비 100%)	1,642,570	328,514	328,514	328,514	328,514	328,514

○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2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향상 및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업위치 : 11개 시군
- 사업내용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8개분야 예술강사 파견
 ※ 8개분야 : (국악·무용·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사진·공예·디자인)
- 사업비 : 3,436백만원
 (국비(문체부) 284, 국비(진흥원) 1,525, 지방비 284, 지방교육재정 1,343)

□ 추진상황

-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 292명(국악분야 108명, 7개분야 184명)
- 도내 357개교에 8개 분야 예술강사 292명 파견, 69,409시수 운영
 - 국악분야 : 108명 강사 파견, 29,128시수
 - 7개분야 : 184명 강사 파견, 40,281시수

□ 기대효과

-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
- 취업이 어려운 예술강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이후
사업비	13,744	3,436	3,436	3,436	3,436

24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사업목적

-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벼 재배농가 지원
 - 사업비 : 2,52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자로서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7만원/ha 단, 0.1ha ~ 5ha/농가당

□ 추진상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 43,660농가 32,452a에 ha당 7만원씩 지원
 - ※ 2015년 44,138농가 33,306ha에 ha당 7만원씩 지원
 - ※ 2014년 42,532농가 33,631ha에 ha당 5만원씩 지원

□ 기대효과

- 벼 재배농가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도비100%)	7,576			2,445	2,611	2,520

25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목적

- 농업재해 경영불안 해소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 기여

사업개요

- 사업량 :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름(지역농협 신청)
- 총사업비 : 10,90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0%, 자담 15%)
- 사업내용 : 농가부담 보험료(50%)의 일부(35%)를 지방비로 지원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손해보험(농협)으로 직접 교부
- 대상품목 : 46품목(본사업 32, 시범사업 14)

구분	품목수	보험대상 농작물
본사업	32	사과, 배, 감귤, 단감, 뽕은감, 밤, 대추,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과,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농업용시설물,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매실, 마늘, 양파, 포도, 자두
시범사업	14	복숭아, 벼,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마나리), 인삼, 배(적과전종합위험), 사과(적과전종합위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추진상황

- 품목별 가입시기에 따라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자부담만 납입)
- '16년 가입실적 : 7,924호, 10,626ha

기대효과

-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제도적인 보상책 마련으로 안정영농 기여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단위 : 호, ha, 백만원)

연도별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실적		
	농가수	가입면적	재원별 사업비					사고건수	면적	지급액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농협(국비)			
합계	14,448	17,800	25,958	3,898	5,199	3,883	12,978	5,100	955	12,219
'14	2,657	2,646	4,934	613	818	1,036	2,467	714	589	8,258
'15	3,867	4,528	8,769	1,365	1,821	1,197	4,386	262	196	2,069
'16	7,924	10,626	12,255	1,920	2,560	1,650	6,125	4,124	170	1,892

사업목적

- 산간오지 등 소외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중풍 환자 급증에 따라 사전예방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량 : 행복나누미 강사(230명), 사업경로당(3,337개소)
- 사업비 : 5,668백만원 (도 30%, 시군 70%)
- 주요내용 : 경로당 대상 맞춤형 건강·여가 프로그램 제공
-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공예,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 추진상황

- '12년(시범) : 723,360천원, 행복나누미 70명, 경로당 1,200개소
- '13년(확대) : 3,323,098천원, 행복나누미 140명, 경로당 2,000개소
- '14년(확대) : 4,025,933천원, 행복나누미 170명, 경로당 2,400개소
- '15년(확대) : 5,179,464천원, 행복나누미 210명, 경로당 3,000개소
- '16년(확대) : 5,668,632천원, 행복나누미 230명, 경로당 3,300개소

□ 기대효과

- 경로당 어르신들에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우울증 및 자살 예방
- 무료한 경로당이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 치매·중풍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 발병이전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이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1,064	723	3,323	4,099	5,179	5,668

○ 여가 프로그램 운영



○ 여가 프로그램 운영



행복나누미 사업 만족도 조사

충북일보

2014년 02월 11일 (화)
02면 종합

노인 97% “9988행복나누미 사업 만족”

노인회 충북연합회 조사

응답자 94% “건강 좋아졌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도내 어르신 1천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프로그램과 경로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

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참여하는 393명의 어르신 중 383명(97.5%)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4%인 371명은 이 사업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80.4%인 316명은 병원진료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경로당 이용자 865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로당을 찾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49.7%로 가장 많았다.

‘여가선용에 유익하기 때문(19.2%)’,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18.2%)’, ‘놀이 등을 즐기기 위해(12.9%)’가 뒤를 이었다.

경로당 개인 사용경비에 대해서는 82%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인별 월비용은 1만원 이하 65%, 2만~3만원 21.6%, 4만원 이상 13.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62.2%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범규기자
caiguksu@naver.com

경로당에 웃음바이러스

충북일보

2012년 06월 20일 (수)
10면 인물

하하호호... 도내 경로당에 ‘웃음 바이러스’

충북도,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화제

소외지역 여가복지 사각지대 해소

‘하하, 호호’ 즐거운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박수소리가 뒤섞여 울려나온다.

오즘 경로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바로 9988 행복나누미 웃음치료교실 수업 때문이다.

충북에서도 가장 오지인 영동군 용화면 월련리 마을 노인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일순을 멈추고 경로당에 모인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흥겨운 박수소리 외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영동군 영동읍에 거주하는 A씨는 요즘 일하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신난다. 경기도 지역 복지관에서 10년 동안 복지사로 일하다가 남편을 따라 영동군에 오게 되었다는 A씨는 경력과 재능을 썩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기던 중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알게 돼 행복나누미로 지원했다.

오지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느라 몸은 고되지만,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충북도는 6월부터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5월 말까지 사·군별로 사업기관 공모 및 행복나누미 공개모집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사업성과 분석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9988은 어르신들이 99세 이상 88(팔팔)하게 사시라는 뜻이다. 도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통해 노인 여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경로당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도내 읍·면·동내 소외지역 경로당에 행복 나누미를 파견,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이런 사업은 이시종 충북복지사 사업명

칭을 직접 직명하고 프로그램 과정을 손수 챙기는 등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후문이다.

행복나누미는 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건강관리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들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했다. 1일 2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경로당은 시군 노인복지부서 또는 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로당 노인들의 수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소외지역 경로당이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9988행복나누미 웃음치료교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마을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맑아지고 있다.

최정옥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2005년에 경로당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원해온 사업이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라며 “개별간의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2013년부터 본격서비스를 시작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충북도에는 4천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천200여 개의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사업’으로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임재찬기자 jcz02@naver.com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기여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급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량 : 지킴이 6,890명, 수혜자 31,383명
(도 30%, 시군 70%)
- 사업비 : 16,893백만원(국 50%, 도10%, 시·군40%)
- 주요내용 : 자연마을 내 연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 등)을 상시 돌보는 일자리사업

□ 추진상황

- '14년 : 행복지킴이 2,000명, 51억원
- '15년 : 행복지킴이 6,890명, 163억원
 - ※ 보건복지부 전국공통사업 채택('15.1월)에 사업 도내 전지역 조기확대
 - ※ 정부 3.0브랜드과제 기관표창(행자부장관)
- '16년 : 행복지킴이 4,000명, 168억원
 - ※ 9988행복지킴이사업 만족도 조사(참여자85.8%만족, 수혜자 83.7%만족),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독거, 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어르신 고독감 해소
- 저소득 노인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억원)			
	합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1,064	51	163	155



○지키마 활동사진



○ 지키미 활동사진

‘15년 전국 공통모델 채택

중청타임즈

2015년 01월 30일 (금) 05면 중남



노인이 노인 돌보는 ‘9988’ 전국 복지사업 모델로 우뚝

충북도는 지난해 ‘9988 행복자킴이’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사업 외에도 ‘9988 행복나눔’, ‘노인일자리 창출기대 인증제’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9988 행복자킴이’ 사업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국 공통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 시행. 전국형 사업모델로 ‘행복자킴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복자킴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을 하는 ‘노노케어(老老care)’의 하나다. ‘노노케어’는 여유가 있는 노인을 모아 독거노인을 돌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지 있을 때는 외롭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9988 행복자킴이’가 매일 찾아와 밥도 같이 먹고 말벗이 돼 지금은 항상 웃고 살아요.” 청주시 산남동에서 홀로 사는 김모씨(68)는 요즘 행복하다. 김씨는 최근 행복자킴이의 돌봄을 받으며 외로움과 정차 멀어지고 있다. 종종기 질환을 앓고 있는 영동군 양간면 구만동 마을의 김모씨(71)는 어느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실신했다. 김씨를 살린 구제주는 행복자킴이었다. 김씨는 늘 곁에서 지켜주던 행복자킴이 최모씨는 의식이 없는 김씨를 발견, 119응급처치를 불러 영동병원에 이송해 살려냈다. 충북도의 ‘9988 행복자킴이’ 사업 효과다.

미담사례 언론보도

중일일보

2015년 02월 10일 (화) 22A면 서북

매일 안부 묻고 빨래 봉사... 말벗 할머니 뵈다



충북도 ‘9988 행복자킴이’ 사업 건강할 노인이 병든 노인 돌봐 지난해 2000개 마을서 첫 시행 반응 좋아 대상 늘리고 전국 확대 한 노인들 ‘행복자킴이’로 선명해 동네 노인 들을 돌보게 하는 제도다. 9988은 ‘99’에까 지 발달하게 살자는 뜻이다. 김 할머니는 2년에 두루미로 활동 중이다. 정작 본인도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굽혀지지 않는 장애(이리저리 아픈 말 짝부터 동네 마실을 다니다 11명의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챙긴다. 그는 “처음엔 아끼 게 하기엔 허덕였지만 분들이 이런 호박죽을 내 놓거나 물에 숨겨뒀던 음료수를 주시기도 해왔던 걸에 드레시나나 ‘드레쉬’ 원본 을 샀었다. 헤어소리가 날까 까비닐로 빙으로 포장한 뒤 나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 프신 지 있어요. 감기는 좀 아파요.” 그 지 장(장문을 컷고 이를 속에 누워 있던 김 해수(69) 할머니가 병문안 오며 물었다. “이 제실 안하- 요즘은 자녀 출퇴근도 드르러 옥 품 왔는디 꼭 먹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15.2.6)



행복자킴이 한마당행사



사업목적

-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 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장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2년 4학기제 운영(2015~2016)
- 교육기관 : (사) 충북농업연구원
- 교육대상 : 중상급 정도의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
- 사업내용 : 농업인 품목전문대학과정(농업마이스터대학)을 개설, 실습형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인원 : 10개 과정 / 205명
- 사 업 비 : 1,105,721천원(국비 541,001, 도비 284,273, 자담 280,447)

□ 추진상황

연도별	수료인원	전공과정	비고
제1기 (2009~2010)	86명	10개 과정 (딸기 포도 수박 고추 인삼 한우 사과 양계 친환경경종 친환경채소)	
제2기 (2011~2012)	189명	10개 과정 (딸기, 포도, 수박, 고추, 인삼, 한우1,2, 사과1,2, 양계)	
제3기 (2013~2014)	186명	10개 과정 (사과1,2,3, 복숭아, 수박, 인삼1,2, 포도, 블루베리, 한우)	
제3기 (2015~2016)	210명	10개 과정 (사과1,2,3, 복숭아, 친환경채소, 인삼, 멜론, 블루베리, 한우1,2)	

□ 기대효과

- 선진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 현장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국비50%도비24%자담26%)	9,102	4,495	1,160	1,173	1,169	1,105

29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목적

- ◇ 1444년 세종대왕께서 123일간 초정에 머무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세종대왕 행궁 재현 ⇒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연계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량 : 부지 36,600m², 연면적 2,560m²
- 사업비 : 120억원(국비 50, 도 25, 시 45)
- 사업내용 : 행궁시설(중심부, 외곽부), 부속시설
 - 중심부(내·외정전, 왕자방 등), 외곽부(승정원, 약방 등), 부속시설(숙박, 식당 등)

□ 추진상황

- 세종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특화전략 마련 연구용역(도) : '14. 3~5
- '15 국비 확보(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 '14.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청주시) : '14. 12 ~ '15. 6
-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승인) : '15. 5
 - 역사적 사료에 의한 복원 및 행궁운영 프로그램 마련
- '16 국비 확보(22.5억원, 공사비) : '15. 12
-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착수) : '16. 5 ~ '17. 6월 완료
- '17 국비 확보(19억원, 공사비) : '16. 12.
- '17 예산추가 확보(6억원, 공사비) : '17. 3.(행자부 특별보조금)

□ 기대효과

-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연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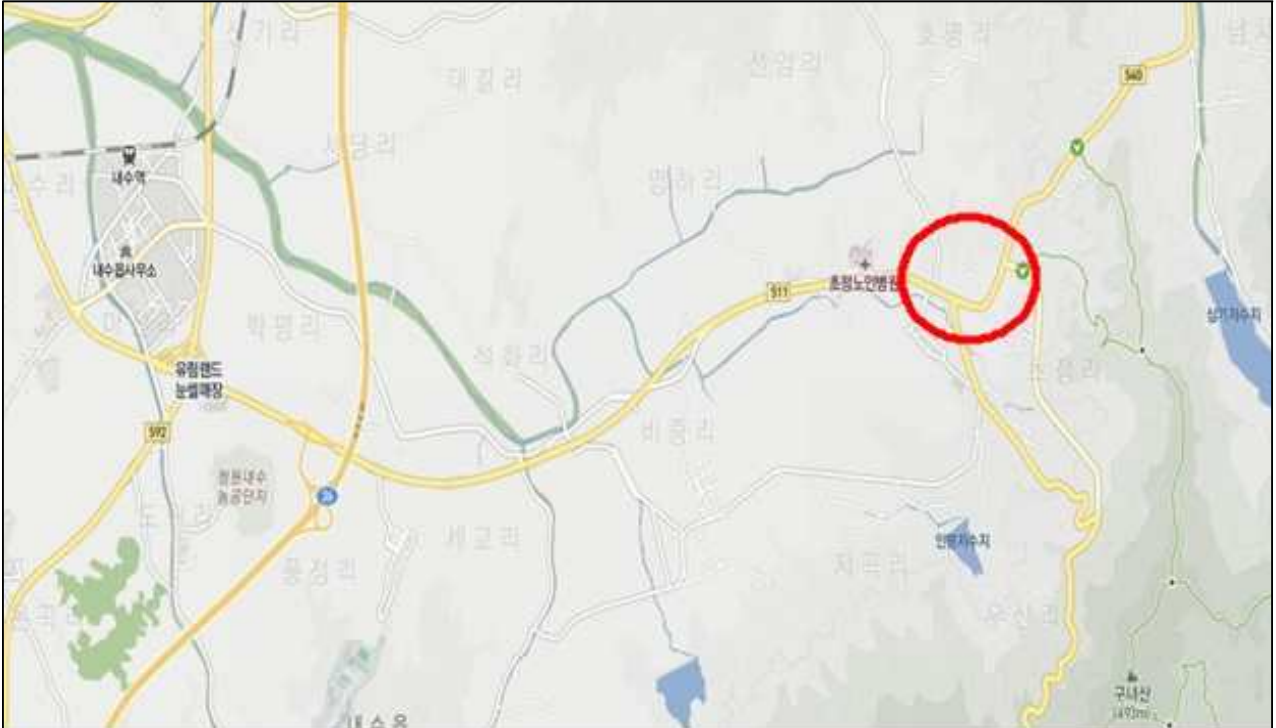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4년까지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비	12,000	-	1,000	4,500	4,800	1,700

참 고

사진자료

□ 위 치 도



□ 현장사진 및 조감도



사업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치료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위 치 : 11개 시군
- 주 관 : 충청북도
- 총 사업비 : 6,029백만원(도비 35% 시·군비 52.5% 자담 12.5%)

□ 추진상황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홍보 : '16. 1월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16. 1~2월
- 대상자 확정 및 카드발급 : '16. 3월~
-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6. 6월
- 사업 추진상황(카드사용 실적) 점검 : '16. 분기별
- 2016년도 사업 정산 : '17. 2월

□ 기대효과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및 문화 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단위:백만원)					
	합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비 (도비35%, 시군비52.5%, 자담12.5%)	22,751	1,615	4,516	5,172	5,419	6,029